傘下支部動靜

▲협회本部

①會勢伸張 및 權益保護를 위한 自救策 계속推進 : 農産物 取扱段階에 있어서 왕왕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藥事團束上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로비活動 强化.

②生藥材의 主産品目에 대한 長期事業計劃 추진 : 生藥材流通의 國際化時代를 앞두고 輸入抑制策의 계속적인 强化와 主産品目에 대한 지역별 選定生産支援과 管理 및 販路促進對策을 종합적으로 강구, 관계당국에 반영코 이를 效率的으로 施行할 計劃 확립.

③本會 宋景太中央會長은 지난 4~7일까지 牛産材 수출량 확보를 위하여 東南亞 무역 중심지인 香港을 방문 販促活動을 展開한바 있다.

④入山採取會員證의 活用 强調 : 山林廳으로부터 시행 80年初반부터 시행 입받아 入山채취 會員制度를 해온 各分所長께서는 다시한번 檢討해보시고 副存資源活用으로 自體所得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람.

⑤滯納會費의 完結督付 : 원활한 運營을 돕기위하여 앞으로는 可及的 規定에의한 (3개월마다) 納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9개월分 체납시는 부득이행정처리 되겠아오니 이점 事前 양지하시기 바람.

⑥夏季수련대회 개최의件 : 來年으로 延期 : 당초 宋景太會長 부임을 계기로 團合과 敎育을 겸한 夏季수련대회를 개최할 計劃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지난6월 28일 今年度2次 理事會에서 다각도로 討議한 끝에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부적절하다하여 來年夏季로 延期조치된바 있읍니다. 7月 生藥報에서의 記事누락과 8月分 休刊으로 인하여 本號에서 알려드리오니 이點 寬容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⑦88道加수매資金 획득 : 多方面으로의 접촉과 협조의 결실로 今年度 추가수매자금 7억4천만원을 配定받아 現在 수령手續中에 있음으로 秋季收穫分에 對한 流通에 相當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江原道支部

도 支部에서는 지난8月 14~15일 삼척시 소장 김시부氏 主管으로 定例녹생회를 소집하고 기간중 積立된 綠生會기금에 대한 現況報告와 이를 토대로한 自體지역내 生藥材유통에 관한 현실 조사와 이地方名所등을 두루 觀光하면서 지역生藥分野 유대를 더욱공고히 하였다.

▲경기도支部

도 支部 녹생회에서는 지난 8월26일 포천시 소장 이인기씨 主管으로 자체녹생회를 소집하고 기간중지역내의 生藥材流通에 관한 정보交流와 中央會 支援활성화 方案등을 논의하면서 이 地方生藥分野 유대를한층 강화하였다.

▲慶北道支部

도 支部에서는 지난 4월 강은중 청송군 소장 主管으로 期別 녹생회를 소집하고 기간중 이지역 生藥材유통 現況과 이 下半期 交流展望등을 논의하고 分所長間의 유대와친목을 도모하였다.

▲釜山市支部

지난 9월10일 支部長·朴吉夫氏 主管으로 月例綠生會 개최.

▲全北道支部

지난 9월14일 부안군소장 신용섭씨 主管으로 定例녹생회 개최.

<독자투고1>

長壽의 秘訣은 小食

안양시 소장 이봉선 제공

장수의 비결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적게먹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이말을 잘 믿으려 하지않는다. 또 믿고 싶지도않다 먹어야 움직이지 먹는재미도 사는재미(食道樂) 아닌가 하고 오히려 반박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小食이 長壽비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적게 먹어야 생리적으로 우선 위에 부담이적다. 욕심에 못이겨 억지로 많이 먹는것과는 달리 맛있게 먹을수 있으므로 소화액 분비도 많고 위장운동도 무리없이 될수있으므로 적게 먹어도 완전 소화된다. 많이먹고 소화불량되는것 보다 우리몸에 영양가는 오히려 小食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다음 많이 먹을수록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뇌혈류가 감소함으로써 노동능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먹어야 움직이지만 과식하면 식곤증에 빠져 꼼짝 못한다. 나태해지고 잠만온다. 정력적으로 일하는 사람치고 이들이 의외로 小食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수 있다. 즉 적게 먹으니까 부담없이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생리현상을 확인할수 있다. 동물은 적당히 배가 고파야 공격중추가 자극되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된다. 포식한사자는 낮잠만 잔다. 한가지 본능이 충족되면 다른 본능적 충동도 함께 잠재워 버리기 때문이다. 적당히먹어야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져서 안정되고 균형잡힌 생활을영위할수있게 됨으로써 이게 곧 장수로 직결 된다고할 수 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두고 적당히 먹고 상을 물릴수 있다는건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증거라고 할수있다. 자제할 수있는 능력이 있음으로생활에 절도가 있고 무리를 하지않는다. 정서적으로 느긋하고 자신있는 사람이다 덜먹어도 정신적으로 풍요롭다. 거지는 잔치집을 만나면 포식을 한다. 다음끼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야 양이 안찬다. 언제나 가난하고 쫓기는듯한 기분이다. 식사를 절제할수있다는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 장수의 비결이 달리 없을것 같다.

서울특파원이 보는 올림픽과 한국

○… 한국은 올림픽을 조음하여 정점에 이른후 다소간 침…○
○…체와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미 들어선 발전의 궤도를 벗어날 수는 없을것입니다.…○
○… <구본희/2000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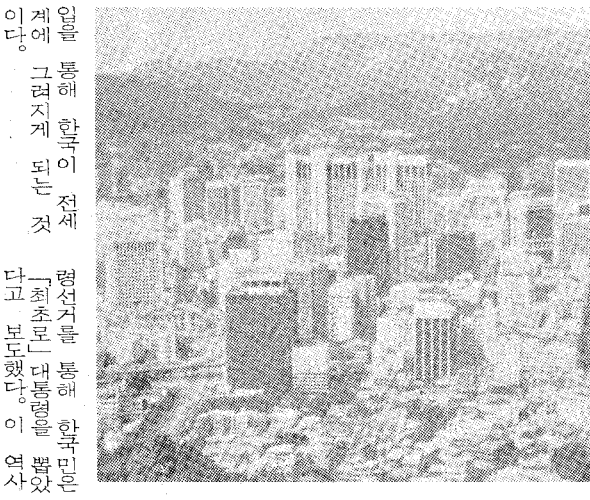
▲「혼돈」이미지 불식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서울지국장 존 맥베드씨는 88올림픽 직전 커버 스토리로 다룬 32페이지에 달하는 「한국특집—올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발행부수가 7만부 정도로 결코 규모가 크다고 볼 수없지만 아시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평이 있는 유력한 시사주간지. 스포츠를 취급하지 않는 정론지인지라 경기자체를 위해 취재팀을파견하지는 않지만 이 특집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깊이있게 조망하게 되리라 한다. 「지금까지 외국의 TV나 신문은 한국학생들의 반정부시위만을 집중보도해 왔읍니다. 그래서 한국하면 떠오르는것은 「혼돈(chaos)」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올림픽은 이러한 「혼돈」과 「불안」의 이미지를 어느정도 씻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올림픽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장벽을 허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원지인 한국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읍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같은날 같은신문11면에 「한국담배 불가리아로 수출」이라는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실렸읍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사표출의 저변에 깔린 한국나름의 특수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워…」 존길슨(보스턴 글로브·미국)

국 이래 최대규모의 보도진을 맞게 되는것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은 숫자 외에도 수많은 잡지와 저널의기자및 프리랜서 작가들이 올림픽의 나라 한국에대한 호기심을 풀어주기위해 한국에 온다. 이들의 작업은 때로 한국의 기이한 풍속이나 문화를격어보고 그것을 전해주는 일이요, 때로는 매캐한최루가스를 맡아가며 데모의 현장을 쫓아다닌 일일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롯한 곳곳을 돌아보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시위하는 학생들을 붙들고 「양심수의 숫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피상적인 저널리스트의 관점에 머물지라도 그가 그린 「한국그림」은 독일어권의 독자들에게 「전쟁과 시위가 낳은 혼란」이아닌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워싱턴 타임즈」지의 특파원 마이클 브린씨 역시 올림픽이 끝나면 전쟁, 폭력·불안·빈곤 등의 한국이미지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한국민은 「최초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 역사이다.



▲한국에 대한 그림그리려

「우리의 독자들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나라라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무얼먹고 무얼입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한국에 왔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한국에대한 한편의 시를 짓는것과 같습니다.」

지난달 3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를 해간독일 「슈피겔」지의 테르지니 기자는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을 돌아보고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시위하는 학생들을 붙들고 「양심수의 숫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피상적인 저널리스트의 관점에 머물지라도 그가 그린 「한국그림」은 독일어권의 독자들에게 「전쟁과 시위가 낳은 혼란」이아닌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워싱턴 타임즈」지의 특파원 마이클 브린씨 역시 올림픽이 끝나면 전쟁, 폭력·불안·빈곤 등의 한국이미지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한국민은 「최초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도 달했다고 말할 순 없으나 세계인이 「경제 쿠데타」라고 평하는 경제혁명에 견줄만한 정치적혁명을 몰고 온 대단한변화라는 것이다. 그가 처음 서울에 왔을때는 1982년 정치적 의견을말하기도 꺼려했다. 그러나점차 그런 상황들이 변화해 갔다. 제6공화국에들어서서는 상대적일수도있으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자유를 누구든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이전처럼불안하게 쳐다보지 않는것도 그전보다 「안정」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프랑스 3대 주요 일간지 중의 하나인 「리베라시옹」지의 특파원으로 지난해 7월에 서울에온 도미니크 바로시씨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원해서 한국행을 택했다고 한다.

▲제2의 일본 아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적으로 유럽사회에서 크게부상하고 있읍니다. 「현대」나 「삼성」과 같은 큰기업이 유럽사회에서 중요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프랑스사람들은도대체 이 낯선 상품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의아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볼 뿐 그 진원지인 한국이 어떤 나라이냐에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없읍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있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 갈지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운나라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자신 한국에 오기전에는 한국에 대해 알고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파리에서 조각을 하는 「전」이라는 한국인친구가 「한국은 제2의 일본이 아니다」라는 것과 더불어 여러가지 얘기를 들려주었고, 이것이 한국행을 확실히 결정하게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난해 6·29선언 직후에 한국에 도착한 이후, 순간순간이 놀라운 발견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회사측과의 싸움 과정에서 폭력적이 되는것과,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끝난후 사과하는 것을보고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 몇해전 파리의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단행한 일이 있었읍니다. 며칠동안 전 파리시가 온통 마비되었지요. 온 시민은 말할수 없는 불편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불평을 말하거나 지하철노조가 사과를 하는 법은 없었읍니다. 쌍방이 폭력적이 되는일도 결코 없었지요.」

이것이 집단의사를 표명하는데 있어 양국문화의 중요한 차이인 것같다고 말한다. 그에게 한국은 개인생활이 없는노동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모습과 가라오케나 길에서 높은소리로 노래를 불러제끼는 개인주의의 상반된 성향을 동시에 갖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은 음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로 말로 요구하는 것이 상반될 때가 많다」는 마이클 브린 기자의 견해와 공통점이 있다.

「반미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데모를 하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스턴 글로브」지의 존 길슨 기자 역시 언젠가 한국의 한영자 신문이 1면에서 미국의 양달배 수입개방압력을 크게 비판한 예를 들어 이러한 「이중적인심리」를 설명한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비판하면서, 같은날 같은신문11면에는 『한국담배 불가리아로 수출』이라는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실렸읍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사표출의 저변에는 한국 나름의 특수한 상황이나문화적 배경이 있을 터인데 그 실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일은 비슷한 나라?

한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언론인들에게는 일본사람들에게 아직도 미니크 바로시 (리베라시옹·프랑스)

『한국은 경제적으로 유럽사회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읍니다. 『현대』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시작했고 프랑스사람들은도대체 이 낯선 상품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의아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진원지인 한국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읍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같은날 같은신문11면에 「한국담배 불가리아로 수출」이라는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실렸읍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사표출의 저변에 깔린 한국나름의 특수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워…」 존길슨 (보스턴 글로브·미국)

력을 크게 비판한 예를 들어 이러한 「이중적인심리」를 설명한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비판하면서, 같은날 같은신문11면에는 『한국담배 불가리아로 수출』이라는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실렸읍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사표출의 저변에는 한국 나름의 특수한 상황이나문화적 배경이 있을 터인데 그 실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일은 비슷한 나라?

한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언론인들에게는 일본사람들에게 아직

『동경올림픽때 배구경기전에서 강호 소련과 맞붙은 일본은 감동적인경기를 거두었읍니다. 그때 중학 1년생이었던 저는일본팀이 이기는 모습을보고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랄까 애국심이고양되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와 같은 모먼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안게임때 중국을 꺾은 「탁구」처럼말입니다.』

시모가와 마사하루 (마이니치신문·일본)

소개되지 않은 한국의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시모가와 마사하루 기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독자들이 한국에 대해 두가지 잘못된 인식을 갖고있는데, 그하나는 「한국은 일본과 아주 비슷한 나라」라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